

역사의 숨결이 남아 있는 애국의 도시 달구벌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될 도시. 이로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도시. 대구는 신라와 가야의 찬란한 문화를 계승한 유서 깊은 도시이며, 한반도 동남권을 대표하는 중추 도시로 섬유와 기계, 안경테, 목공예, 양산, 자전거 등의 특화 산업이 잘 발달된 산업 도시이다.

대구광역시의 산업경제 특성

대구시는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기업 활동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첨단 고부가가치형 섬유·패션 산업으로의 구조 개편을 위한 밀라노 프로젝트 추진, 기계·금속 및 특화 산업의 육성, 첨단 산업의 유치 등을 통해 점차 경쟁력 있는 발전적 산업 구조로 변모해 가고 있다.

지역내 총생산액은 전국의 3.4%인 17조 1,204억 원으로 1차 산업이 1%, 2차 산업 24%, 3차 산업이 75%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의 제조업체는 5,992개에 달하며, 이들 중 99.6%가 중소기업이고, 섬유 산업이 36.2%, 기계·금속·자동차 부품 산업이 4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업체수에 있어 전국 섬유업체의 11.9%에 달하는 지역의 섬유 산업은 생산액으로 전국의 13.9%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는 14.8%를 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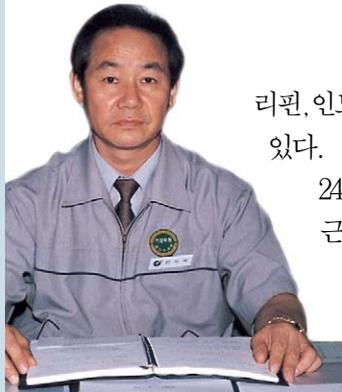
지역내에는 9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지역업체의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 중 성서 산업단지는 1,232개 업체의 34,765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대구시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로 41.7%인 3,842,457백만 원을 생산하고 있다. 이밖에 위천국가산업단지는 대구시에 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단지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의 안전인을 만나서

>> 2중, 3중의 안전을 피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은 국가경제의 혈액인 화폐를 제조하는 곳으로 은행권, 주화 이외에도 수표뿐만 아니라 각종 유가증권과 메달, 훈장 등 300여 종을 국내외에 제조·공급하고 있다. 특히, 최고의 기술력으로 이스라엘, 필





▲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반석복 부장

리핀, 인도 등의 화폐를 비롯해 세계 2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24시간 기계·기구를 가동하고 있는 이 곳에는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야간작업은 필수이며 시간의 특성상 야간 작업자는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에 경산 조폐창에서는 법적 안전관리자로 2-3명 선임하였다. 특히, 야간 안전관리자는 23시부터 3시까지 현장 안전순찰을 매일 실시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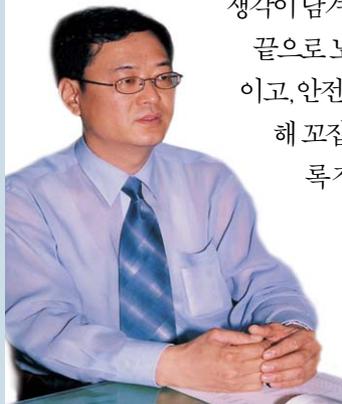
또한 이곳의 모든 기계·기구는 프레스 등으로 협착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유해·위험기계에 대해서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어 안전 수칙을 어기지 않는 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안전은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대충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반석복 부장의 안전마인드와 현장 안전이 일치됨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최근 사회적 이슈이기도 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대응도 남다르다. 근골격계 질환 관련, 외부강사를 초빙한 교육과 요통체조 도입, 안전공단과 연계한 개선점 발굴 등으로 현재 작업자의 지지를 인간공학적으로 개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산조폐창의 목표는 무재해 zero이다. 경상으로 처리한 무재해 zero가 아닌 진정한 무재해 zero이다. 현재 운동경기 등 행사용 재해를 제외하고는 무재해 zero이기에 반석복 부장은 무재해 zero가 단지 꿈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노진훈 안전과장은 운동경기 등의 행사용 재해에 대해 산재로 처리할 경우 무재해 달성과는 상관없으나, 재해율에 반영되는 제도적 이중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담당 기관이 다르다 하여 기준도 달라질 수 없다는 노진훈 안전과장의 생각이 담겨있는 것이다.



▲ 동진건설(주) 권석원 대표이사

끝으로 노진훈 안전과장은 안전 업무를 기피하는 것이 사회적 실태이고, 안전업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긍지를 갖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꼬집는다. 조속히 우리 안전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겠다.

>> 무재해 zero를 이어가는 동진건설(주) << 89년 설립하여 토목, 건축, 환경 등 종합건설업을

수행중인 동진건설(주)(권석원 대표이사)는 관공사 위주의 시공을 하고 있다. 선안전 고품질 시공을 지향하면서 내실을 기하는 동진건설은 매년 매출액이 신장되고 있다.

안전제일이라는 기틀 아래 전현장 무재해 zero라는 꿈을 2002년 이미 이룩한 바 있다.

모든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비를 100% 사용토록 본사 차원에서 지향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 이상이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항시 현장 소장 및 협력업체 소장들에게 작업 시작 전 해당 공정에 대한 안전미팅을 통해 안전교육과 안전체조를 강조하는 권석원 사장은 작업자는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한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IQ 점수에 반영되어, 수주 시 많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보다 동료의 안전을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이다.

전국에는 20여개의 현장이 가동되고 있다. 그 중 동진건설의 기술지도 대상 현장에 대해서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모든 것을 위탁관리하고 있다. 금액을 떠나 공신력과 기술력을 두루 갖춘 기관과 함께 일함으로써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동진건설의 생각이다. 본사 문석준 차장은 안전협회와 함께 현장을 돌보면서 무재해 zero를 이끌어 간다고 한다.

이러한 본사의 안전마인드는 법무부 발주 현장 중 안전과 품질에서 1, 2등을 점한 충주구치소 현장에서 나타났다.

불안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회사의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정으로도 문제가 파급되므로 안전의 생활화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권석원 사장의 말처럼 우리 모두가 이를 알고 실천해야겠다.

대구시의 재난방지 시스템은?

대구시는 유사시 시민 자위 및 재해·재난사고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해 민방위대를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시설·장비의 확충으로 피해 최소화 및 긴급복구 등 비상대비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긴급구조시스템과 지하철 안전교육 체험장에 대해 소개한다.

>> 긴급구조시스템 구축 <<

긴급구조시스템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119 신고자에 대한 위치를 자동 추적·분석하고 출동대를 자동으로 편성·지령하며, 필요한 정보를 현장 진압요원들에게 즉시 제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종합상황통제시스템이다.

1996년부터 긴급구조시스템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해 온 결과 장난·허위신고 방지(74% 감소) 및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화재는 발화에서부터 최초 5분의 진압활동이 성패를 좌우할 만큼 초동조치가 중요하므로 출동시간이 시스템 구축 전 7~10분에서, 구축 후 3~5분으로 단축됨에 따라 재난피해 최소화에도 기여하고



지역 안전기행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4년까지 향후 3단계로 추진될 시스템에서는 시내 여러 대형건물 옥상에 고배율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대형사고 예방 지역을 중점적으로 감시하는 “화재 등 재난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상황실에서 GIS 및 위험대상물 데이터 베이스와 연동시켜 재난발생감시 및 화재발생시 녹화·재생하고, 재해발생 등의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하게 현장을 촬영하는 동시에 지령실, 작전실 등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현장영상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상정보를 근거로 효과적인 작전지휘 및 원활한 지역 주민의 피난 유도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입체적 방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지하철 안전교육 체험장 <<

대구지하철공사는 시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대구지하철 방화사고를 교훈 삼아 유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이용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하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안심차량기지를 소풍, 자연학습, 지하철견학 및 운동시설 이용 등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특히 금년 6월부터 연중 개방되는 안심차량기지에서는 “물 소화기 체험”과 “전동차 출입문 비상개폐 및 전동차 비상인터폰 사용 체험”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대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초등학교 이상이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안심차량기지에서는 인터넷 (www.daegusubway.co.kr → 고객참여마당 → 민원게시판)에서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 활동

최근 36회 산업안전강조주간을 맞이하여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지회에서는 지역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기법 보급을 위해 6월 26일 위험성평가기법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산업안전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다. 

〈최종덕 기자〉